

선교사 마포 삼열의 교육 사상연구

권태경 교수(충신대학교)

II. 마포삼열의 교육 활동의 방향

마포삼열은 크게 세 가지 교육에 중점을 두고 교육 선교를 전개하였다. 선교사의 임무에 충실하기 위한 성경 교육, 그리고 여성 교육, 마지막으로 기초 교육을 마친 이들을 위한 전문 교육이었다.

1. 신학교육

마포삼열이 평양으로 선교지역을 옮긴 뒤 설립된 대부분의 학교에서도 성경 교육은 필수적인 교과목이었다. 자료를 통해 확인된 승의여학교의 경우 학생들 대부분이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매일 성경 수업과 예배시간이 있었다.(승의여자중고등학교, 1963: 95) 승실학교 역시 매일 1시간씩 예배와 성경수업이 있었으며, 대학에서의 성경수업의 경우 학년별로 나누어 구약과 신약을 가르쳤다. 1909~1910년 교과과정을 살펴보면 1학년은 마태복음과 이사야, 2학년은 요한복음, 빌립보서 및 잠언, 3학년은 히브리서, 야고보서, 구약의 소선지서를 가르쳤고, 4학년은 로마서와 시편, 다니엘서를 수업하였다.(승실대학교, 2007: 38)

초·중등교육에서의 성경수업에서 전문적인 신학교육은 각 지방교회의 급격한 성장으로 인해 불가피한 것이었다. 마포삼열은 선교사들의 인원 부족과 언어의 장벽, 그리고 조선인 전도자 및 교역자의 필요를 절감하여, 바쁜 전도활동 속에서도 신학 교육기관 설립을 주도하였다. 그는 평양 대동문 부근에 있었던 자신의 사택을 신학교로 개방하였다. 1901년 최초의 신학생으로 방기창과 김종섭이 입학하였고, 마포삼열과 이길함의 번갈아 수업하는 것으로 평양신학교가 시작되었다.(충신대학교, 2003: 140-141)

2. 여성교육

마포삼열 역시 당시 교육의 기회에 소외된 부녀자들에게 새로운 소망과 긍지를 심어주기 위해 여성 교육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는 1893년 당시 정동여학당(정신여학교의 전신)의 이전 문제에 개입하여 선교부에 ‘여성과 어린이 선교 단체’들에게 여학교를 위한 기금을 통해 학교 이전을 할 것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 과정에서 마포삼열은 여학교 설립이 거대한 여성 사역의 중심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었다. 또한 교육해야 할 여성은 빈부와 계급의 차별을 두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Samuel A. Moffet, February 20, 1893)

이러한 그의 노력은 1903년 승의여학교의 설립으로 나타난다. 승의여학교의 모태는 ‘예수교소학교’였다. 예수교소학교는 1897년 가을 여성 교육을 위해 평양성 주변에 설립되었다. 선교사 이길함(Graham Lee) 집에서 배움의 열정이 있는 10여명의 소녀들이 모여 교육을 시작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승의여자중고등학교, 2003: 77)

3. 전문교육

1905년 숭실중학교 재학생은 160여명에 달하였고, 학생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고등교육 기관의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1905년 국내 최초로 대학과정의 교육을 시작하였고, 1906년 ‘대학부’를 개설하기에 이르렀다. 마포삼열은 숭실학교 대학부 임시 이사회의 의원으로서 숭실학교 대학부 운영에 참여하였는데, 1905년에 장로교 선교부와 감리교 선교부는 숭실학교 대학부 임시 이사회를 배위량, 마포삼열(馬布三悅 S. A. Moffet), 방위량(邦緯良 W. N. Blair) 등의 의원으로 구성하였다.

이후 1918년부터 마포삼열은 10년간 숭실학교의 교장을 역임하면서 대학부를 비롯한 학교 운영 전반을 관여하였다. 대학부의 개설은 당시에 큰 화제가 되었다. 대한매일신보에서는 「하평양 대학교설립(賀平壤大學校設立)」이라는 창립 축하 논설을 실었으며, 평양 지역민들이 수천원의 기부금을 조성하기도 하였다. 또한 제1회 졸업생을 배출할 당시에도 언론은 이를 ‘한국 교육계의 일대 호사’라고 평가하는 등 숭실학교의 고등교육은 큰 관심을 끌었다.(공립신보, 1908, 11, 18일자, “論平壤大學校卒業生”)

Ⅲ. 마포삼열의 교육 활동의 영향

마포삼열은 살펴본 바와 같이 서울과 평양 등 다양한 지역에서 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하였다. 그의 교육 선교를 통해 수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배출되었으며, 그들은 일제의 국권 피탈 이후 다양한 독립운동에 앞장섰다. 뿐만 아니라 그가 설립·운영한 학교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일제에 저항하였다. 숭의여학교의 송죽회(松竹會)는 가장 잘 알려진 학생 민족운동단체였다. 마포삼열의 영향을 받은 이러한 학교들은 1910년대 일제의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탄압정책이 시행되던 시기에 ‘105인 사건’과 항일 비밀 결사 조직인 ‘조선국민회’을 통해 보여지듯이 항일 독립운동의 중심이었다. 숭실학교와 평양신학교를 비롯한 1910년대 사립학교는 일제의 식민지 정책에 저항한 민족 학교로서 애국 계몽 운동의 중심적인 학교였다.

맺음말

마포삼열은 선교사로서 한국의 근대교육과 민족 교육에 기여한 인물로 교육자로도 평가되어야 한다. 그는 한국 교회의 아버지로서, 한국 교회의 복음화를 위해 일생을 헌신한 선교사였으며, 동시에 평양신학교와 숭실대학교 그리고 숭의학교의 설립자와 학장으로 재임한 교육자였으며, 동시에 일제강점기의 식민지 통치기에 민족 교육을 위해 투신한 한국 근대역사의 산 증인이었다.

선교사 마포 삼열의 교육 사상연구

권태경 교수(총신대학교)

머리말

I. 마포삼열의 초기 교육 사업 II. 마포삼열의 교육 활동의 방향

1. 신학교육
2. 여성교육
3. 전문교육
4. 마포삼열의 학교 운영의 특징

II. 마포삼열의 교육 활동의 영향

맺음말

머리말

한국의 근대교육의 발전은 개신교 선교사들이 근대교육을 주도하였으며, 정부에 의한 관립학교도 초기의 설립과 운영은 선교사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처럼 선교사들이 한국의 근대교육 발전에 미친 중대한 역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학계에서는 선교사들의 교육 활동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2000년대 이전까지는 대부분 선교사 개인의 전반적인 선교 활동 내에서 부분적으로 다루거나, 여성교육, 맹아교육 등의 특수한 교육에 대한 연구에서 언급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권태경, 2014; 임인재, 2015: 45, 이광호, 1987; 조선훈, 2013)

부진했던 선교사들의 교육 활동에 대한 연구는 최근 들어 다양한 인물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마포삼열(Samuel Austin Moffet)의 교육 활동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답보 상태인 듯 하다. 대부분 마포삼열에 대한 연구는 그의 전체적인 선교 활동에 대한 것이거나, 다른 선교사들과의 비교 분석 정도에 그치고 있다. (류대영, 2010; 변창욱, 2011; 김세범, 2012; 최영근, 2015; 박응규, 2007; 이재겸, 2012; 최영근, 2003)

따라서 본고는 마포삼열의 다양한 선교 활동 가운데 교육 활동에 집중하고자 한다. 마포삼열이 처음 입국했을 당시 맡았던 사역도 고아원 내에서의 교육 활동이었다. 또한 서울, 평양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 마포삼열의 영향을 받은 학교가 상당했다는 점은 주목되어야 한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크게 세 가지의 문제 제기를 통해 논지를 전개해 나가하고자 한다. 첫째, 마포삼열의 서신을 통해 그가 어떠한 교육 선교를 계획하였으며, 진행하였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¹⁾ 둘째, 그가 설립했거나, 운영에 참여한 학교들을 분석함으로써 그의 교육 사역의 중점적

1) 본고에서 인용하는 마포삼열의 서신은 대부분 김인수 역, 『마포삼열 목사의 선교 편지』

인 목적과 방향을 살펴본다. 셋째, 그가 제시한 교육 선교가 이후 한국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I. 마포삼열의 초기 교육 사업

조선은 1876년 강화도조약을 시작으로 1880년대에 들어서면서 서구 여러 나라와 통상조약을 맺으면서 서양의 다양한 문화를 접하였다. 서양의 새로운 문화는 조선에 각종 분야에 큰 영향을 끼쳤다. 교육의 경우 가장 큰 변화가 나타나는 분야 중 하나였다.

서양의 신교육은 개항 직후 크게 두 주체에 의해 조선에 전파되기 시작했다. 그 첫번째 주체는 조선 정부였다. 조선 정부는 자주적인 근대화를 위해 기존의 구학문이 아닌 신학문, 신교육의 수용을 서둘렀다. 1886년 설립한 육영공원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신교육을 수용하기 위해 설립한 최초의 근대식 관립학교였다. 육영공원에서는 대부분 영어를 가르쳤으며, 그 외에도 독서, 습자, 지리 및 각국의 역사, 정치 등을 수업하였다.

또 하나의 주체는 선교 활동을 위해 입국한 개신교 선교사였다. 앞서 살펴본 육영공원의 경우 정부의 적극적인 신교육의 도입을 위해 설립된 학교였으나, 실제 수업은 외국인 선교사들에 의해 진행되었다. 당시 조선 정부는 개신교 선교사들의 활동을 교육 및 의료 활동으로 제한하였으며, 직접적인 전도 활동을 불허하였다.(한국기독교사연구회, 1989: 194) 따라서 학교 설립을 비롯한 교육 활동은 선교사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선교 전략이었다.

한편 미국 선교부에서 파송되어 한국에 오게 된 남·북 장로교 및 호주 장로교 선교사들은 1893년 1월 선교사 공의회를 통해 선교정책을 심의하였다. 이 공의회에서 채택된 10개의 조항 중 3번 조항은 '그리스도교 교육은 지방 도시에서 소학교를 경영하여 잘해나갈 수 있음, 그러므로 신자 자녀들은 교회 경영 학교에서 훈육하여 장래 교사로 양성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송의 여자중고등학교, 1963: 68)

선교사들은 이러한 선교정책에 따라 각 지역에 선교기지를 건설하였다. 이 선교기지를 중심으로 교회를 세웠고, 뒤이어 사립학교를 설립하였다. 선교사들은 종래의 조선 교육에 결여되어 제공할 수 없었던 것들이 무엇인가 파악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조선인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려고 했다. 선교사들이 구성한 교육 프로그램은 교양교육 및 대중교육이었다. 수학·과학·영어 및 한글 등 기존의 조선 교육에서 접할 수 없었던 교과를 제공하고자 했다.(임인재, 2015: 34) 또한 중간 계층을 교육 대상으로 설정하여, 이들로부터 위아래 계층으로 교육이 확산될 것을 기대하였다.(박연호, 손세희, 2011: 78) 따라서 선교사들이 설립한 학교는 입학에 신분적 제한이 없었고, 남녀의 제한도 없었다.

이러한 선교정책에 기초하여 선교사들은 1894년부터 사립학교를 설립하기 시작하였다. 평양의 격물학당(광성학교의 전신)을 시작으로 서울과 평양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학교가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선교사들은 1894년부터 1900년대 초반까지 전국의 사립학교 설립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1890~1904)』, 장신대 출판부, 2000 및 옥성득 역, 『마포삼열 서한집』 1권, 두란노, 2011 의 원문 및 번역문을 참고하여 분석하였다. 따라서 『Samuel A. Moffet's Letter』라고 인용한 자료는 대부분 이 두 권의 책에서 참고하였다는 점을 미리 밝혀둔다.

마포삼열(Samuel Austin Moffet) 선교사 역시 이러한 학교 설립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인물이었다. 그는 하노버대학에서 자연과학을 전공한 후, 시카고의 맥코믹 신학교에 진학하여 신학을 공부하였다. 1888년 맥코믹 신학교를 졸업한 마포삼열은 이듬해인 1889년 3월 미국 북장로교 해외선교부에 한국 선교사로 파송할 것을 요청한다. 같은 해 4월 15일 마포삼열은 선교부로부터 한국 선교사로 임명받고 12월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떠나 요코하마에 도착하였다. 마포삼열과 그 일행들은 요코하마에 2주 정도 체류하였는데, 그 기간동안 마포삼열은 도쿄의 메이지학원 및 그레함신학교, 교토의 도시샤학교 및 도시샤여학교, 나가사키의 스티지신학교와 남학교를 방문하였다.(Samuel A. Moffet, January 28, 1890) 이 활동은 이후 마포삼열의 교육 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사건이었다. 실제 선교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학교를 돌아보고 그 곳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들과 교류하는 것은 당시 미국 내의 선교프로그램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기회였기 때문에 마포삼열에게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뿐만 아니라 마포삼열은 2년 뒤인 1892년 제 3차 전도여행 직후 서울로 돌아오기 전에 중국의 우장(牛藏)과 지푸(芝罘)를 경유하였는데, 이 또한 이 지역의 학교를 방문하여 학교 사역의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였다.(Samuel A. Moffet, Nov. 9, 1892) 당시 지푸와 등주(登州)는 선교사들의 학교 설립 및 운영이 매우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지역이었다. 이러한 모습은 마포삼열이 학교 설립 및 운영, 즉 교육 선교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1890년 1월 한국에 입국한 마포삼열은 언더우드가 설립한 고아원 및 남학교(경신학교의 전신)에서의 활동을 시작으로 교육 선교를 진행하였다. 언더우드 부부가 안식년을 맞게 되자 마포삼열은 1891년부터 고아원 및 남학교의 운영을 전담하였다. 남학교의 경우 성경을 지도하는 것과 한문 학습의 기초를 마련하는 것을 학교의 주요 목표로 삼았다.(Samuel A. Moffet, January 27, 1892) 학교는 점점 발전하여 1892년에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29명의 등록 학생 중 18명이 학교에 남아 계속 학업을 진행하였는데, 그 중 2명의 경우 한문 수업은 『맹자』를 끝내고 3경을 시작하였고, 성경 수업은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창세기를 마칠 수 있었다. 나머지 학생들도 『사기』를 읽고,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을 한문으로 읽었으며, 언문 『사민필지』를 끝냈다.(Samuel A. Moffet, January 20, 1893) 마포삼열은 남학교를 통해 이후 선교 활동을 위한 조선인 전도자, 기독교 교재를 사용하는 교사가 육성될 것을 기대했다.

서울에서 활동하면서도 여러 차례 평양 및 북부지역으로 전도여행을 떠났던 마포삼열은 1893년 평양으로 자신의 선교지역을 옮기게 된다. 당시 미국 북장로교 한국선교부가 평양에 선교지부 설립을 결의하고 그를 비롯하여 이길함(李吉咸, Graham Lee), 소안론(蘇安論, W. L. Swallen)을 파송하여 지부 건설을 위임한 것이었다.

마포삼열은 두 선교사와 그의 조사 한석진, 그리고 전도인 서상륜과 더불어 1893년 봄 서울을 출발하였다. 한석진은 서울에서 있었던 신학반의 교육을 마치고 바로 의주로 돌아가지 않고, 남아 있다가 마포삼열과 동행하였다. 그들은 평양에 내려와 최초 교인인 최치량(崔致良)이 운영하던 주막에서 전도하다가 그 근처 즉 대동문 인근에 집 한 칸을 얻어 교인 4~5명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였다. 이 때가 1893년 2월 5일 오후로 평양에서 선교사들과 한국 교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린 첫 번째 일이었다. 그 때 20여 명의 교인들이 마루에 앉아 찬송을 부르고 서상륜이 설교를 했다.(Sallie F. Swallen, *Dear Sister Jennie* (Seoul, Korea:1893); , 2002: 60-66)

이렇듯 마포삼열은 평양을 중심으로 교회를 계속 개척했는데, 1893년에 장대현교회를 비롯하여 한천교회(평원), 신환포교회, 사평동교회(재령), 1894년 모동교회, 외서창교회(봉산), 1895년 자덕교회(평원), 신시교회(구성), 1896년 삼관교회(평은), 숙천읍교회, 1897년 중화읍내교회, 강진교회, 장천교회, 통호리교회, 덕지교회, 1898년 열파교회(강동), 1900년 남궁리교회, 현좌동교회, 양포교회, 팔동교회, 안주성교회, 1901년 문창리교회, 1903년 영유읍교회, 1904년 이천리교회, 1905년 입석교회, 1907년 황촌리교회, 1909년 평양서문밖교회 등이 대표적인 교회이고, 그 이외에도 평안도, 황해도에 걸쳐 수많은 교회들을 설립하여 그가 은퇴하던 1930년대에는 약 1천여 교회가 설립되는 엄청난 복음 사역을 수행하였다.(장로회신학대학교, 2002: 60-66)

마포삼열은 이러한 복음 사역과 동시에 교육 사역에도 커다란 관심을 기울였다. 1900년까지 북장로회가 운영하던 전국의 교육기관은 28개였다. 그 중 평양에 17개가 설립되었으며, 학생의 수도 전체 597명 중 380명(남학생 330명, 여학생 50명)에 달하였다.(그리스도신문, 1901 6. 6일자 “교회회사”) 이는 선교사들의 교육 선교 활동이 평양에서 매우 활발하게 전개되었음을 의미한다.

평양에 도착한 마포삼열이 처음 설립한 학교는 1894년 베어드(Baird, W. M.)와 함께 설립한 승덕학교였다. 승덕학교는 예비과 3년, 본과 3년으로 구성하였고, 남학생만의 초등교육기관으로 운영되었다. 이어서 1897년 마포삼열은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승실학교 설립에 참여하였다. 그는 승실학교에서 산수, 대수학, 기하학, 심리학 기초, 위생학 등을 수업하였다.(승실대학교, 1997: 90) 1901년에는 전문적인 신학교육을 위한 평양신학교를 설립하였고, 1903년에는 여성교육을 위한 승의여학교를 설립하였다. 그 외에도 공성학교 등 수많은 학교 설립을 직·간접적으로 진행함으로써 평양 및 북부지역의 교육 선교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임인재, 2015: 35)

II. 마포삼열의 교육 활동의 방향

마포삼열은 크게 세 가지 교육에 중점을 두고 교육 선교를 전개하였다. 선교사의 임무에 충실하기 위한 성경 교육, 그리고 여성 교육, 마지막으로 기초 교육을 마친 이들을 위한 전문 교육이었다.

1. 신학교육

마포삼열에게 있어서 교육 사역은 참된 그리스도인을 양성하고 신앙을 견비한 기독교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 최우선의 목적이었다. 따라서 교과 과정에 있어서 성경 수업은 빠질 수 없는 과목이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울의 남학교에서는 한문으로 된 성경을 교재로 사용하여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쳤다.(Samuel A. Moffet, January 20, 1893)

마포삼열이 평양으로 선교지역을 옮긴 뒤 설립된 대부분의 학교에서도 성경 교육은 필수적인 교과목이었다. 자료를 통해 확인된 승의여학교의 경우 학생들 대부분이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매일 성경 수업과 예배시간이 있었다.(승의여자중고등학교, 1963: 95) 승실학교 역시 매일 1시간씩 예배와 성경수업이 있었으며, 대학에서의 성경수업의 경우 학년별로 나누어 구약과 신약을 가르쳤다. 1909~1910년 교과과정을 살펴보면 1학년은 마태복음과 이사야, 2학년은 요한복음, 빌립보서 및 잠언, 3학년은 히브리서, 야고보서, 구약의 소선지서를 가르쳤고, 4학년은 로마서와 시편, 다니

엘서를 수업하였다.(송실대학교, 2007: 38)

초·중등교육에서의 성경수업에서 전문적인 신학교육은 각 지방교회의 급격한 성장으로 인해 불가피한 것이었다. 마포삼열은 선교사들의 인원 부족과 언어의 장벽, 그리고 조선인 전도자 및 교역자의 필요를 절감하여, 바쁜 전도활동 속에서도 신학 교육기관 설립을 주도하였다. 그는 평양 대동문 부근에 있었던 자신의 사택을 신학교로 개방하였다. 1901년 최초의 신학생으로 방기창과 김중섭이 입학하였고, 마포삼열과 이길함이 번갈아 수업하는 것으로 평양신학교가 시작되었다.(충신대학교, 2003: 140-141)

마포삼열은 1916년 『신학세계』에 「장로회교 신학교 약사」라는 제목으로 평양신학교 설립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다.

“조선반도에 장로교신학회는 평양 시내에 재(在)하며 조선에 재(在)한 차교회사업(此敎會事業)의 가장 유표(有表)하고 현저한 본색(되는) 성경 전문 학반 제도(聖經專門學班制度)에서 점차 발전되어 조직되었고 사역하는 조사와 영수제씨(領袖諸氏)의게 차교회(此敎會)에서 제씨등의 요구되는 사역함의 지력과 영력에 공급하였더라.”(김의원, 2003: 138)

1903년 겨울, 봄, 여름에 평양공의회는 잠정적으로 채택한 교과과정으로 이들 여섯 명을 한 반에 모아 1년 간의 교과과정을 커버할 수 있는 내용을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교육시켰다.

“본교의 발전-본교하 차제로 진보되어 목사후보자로 주후 일천구백일년 평양중앙교회당 장로 이인이 입학하고 일천구백삼년에 사인이 더 입교하여 합육인을 집합후 오개년에 시험적 교수학과중 제 일년급과목을 교수하기를 시작하였고 매년 삼개월간은 재학하여 공부케하고 구개월간은 무교에 종사케하여 교회를 주장케하고 사경을 인수케 하며 정한 과목에 대하여 자택에서 자습을 하여 연구케한 후 차시 귀교시에 시험을 수케하더라.”(충신대학교, 2003: 142-143)

평양신학교의 신학교육은 1903년에 이르러 본격화되었다. 성경을 비롯한 다양한 신학관련 수업이 진행되었는데, 당시 교수는 대부분 평양 지역의 선교사들이었다.(충신대학교, 2003: 145) 초기 수업 과목과 담당 교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수업 과목	담당 교수
신학일반 및 소요리 문답	마포삼열 (Samuel A. Moffett)
구원론	배위량 (William b. Hunt)
유대사기	소안론 (William L. Swallen)
목회학	이길함 (Graham Lee)
마태복음 및 고대사	헌트 (William b. Hunt)
모세오경	배위량 (William M. Baird) 소안론 (William L. Swallen)
산수	편하설 (C. F. Bernheisel)

< 1> 평양신학교 초기 수업 과목 및 담당교수

평양신학교 운영 초기에는 5년제로 학년을 운영하였다. 교과 과정에서 열람과(閱覽課)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학년별로 지정된 도서를 읽게 하는 과목이었다.(이재검, 2011: 30; 장로회신학대학교, 2002: 112-114) 열람과의 경우 학년이 바뀌게 되는 방학 중에 이루어졌다. 5년제로 구성된 교과 과정은 <표 2>와 같다.(장로회신학대학교, 2002: 117)

학년구분	과목내용
1학년 과목	삼복음합, 창세기, 소요리문답, 신도요론(신학), 구약사기, 구약지리, 구약총론, 강도법, 음악, 국어
2학년 간 열람과	만국통감 1,2권(강), 천도강대(天道講臺), 복음강대, 기독교실록(基督實錄)
2학년 과목	사도행전, 출애굽기, 신도개요(信道揭要), 신도요론(神道要論), 인죄학(人罪學), 교회사기(상고), 신약지지(新約地誌), 신약총론, 도덕학, 심리학, 강도법, 음악, 국어
3학년 간 열람과	민수기~ 사사기(강), 갈라디아서 ~ 만국통감 3,4,5권, 뇌초가보교기(腦草可保教記), 신도요론(1권), 구속정의 시비학체요(是非學體要), 사도사기(使徒史記)
3학년 과목	고린도전서, 에베소인서, 이사야서, 성례, 신도요론(求學)
4학년 간 열람과	룻기 ~ 이사야(강), 고린도후서~마태복음, 신도요론(2권), 영구사기(강), 로득개교기략(路得改教紀略)(강), 구세약설(球世略說)
4학년 과목	요한복음, 로마인서, 시편, 예레미야서, 교회사기(更正前, 更正時), 목사지법, 말세학, 권징조례, 예배모범, 신도(神道), 국어, 음악
5학년 간 열람과	구약 약백기(約百紀)에서 아가, 애가로 서결(西結)(강), 신약 아각서(雅各書)에서 유다서까지(강), 미국사기(강), 양교변증(강), 신도요론(3권), 고성임죄(古聖任罪), 마적론도탐원(摩笱論道探原)
5학년 과목	히브리서, 묵시록, 이미기(利未記), 다니엘서, 교회사기(更正後), 전도회사기, 성신지사(聖神之事), 목사지법, 교수법, 음악, 국어
5학년 간 열람과	구약 하서서(何西書)에서 마납기(馬拉基)(강)

<표 2> 평양신학교 5년제 교과 과정

1920년 이후에는 학제를 1년에 봄, 가을 2학기제로 개편하고 수업 연한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였다. 한 학기를 3개월 반씩 봄, 가을로 구분하여, 총 7개월간 수업을 했다. 교과목의 경우 고고학, 교회서신, 지혜문서, 청년지도, 이방종교 과목 등이 추가되면서 보다 양질의 신학교육을 위해 노력하였다.(이성근, 2002: 170) <표 3>은 3년제 교과로 변경된 교과 과정을 정리한 것이다.

<표 3> 평양신학교 3년제 교과 과정 (1920년 이후)

학년	학기	과목
상학년 (1학년)	봄	공관복음, 창세기, 구약총론, 성경요리문답, 변증론, 구약사기, 설교학
	가을	사도행전, 출애굽기, 신약총론, 교회사기, 종교상도덕학, 설교학, 실제신학
중학년 (2학년)	봄	요한복음, 에베소서, 신약총론, 시편, 구약지리, 신학총론, 교회사기, 설교학
	가을	고린도후서, 신약지리, 이사야서, 신학총론, 교회사, 교회정치, 실제신학, 심리학
하학년 (3학년)	봄	히브리서, 구약총론, 다니엘, 말세론, 성령론, 교회사기, 권징조례, 예배모범, 목회학
	가을	로마서, 묵시, 예레미야, 영혼론, 성령론, 교회사기, 목회학, 사회학, 실제신학

평양신학교의 경우 또다른 특징 중 하나는 졸업생들을 위한 특별과정이었다. 춘계 신학교라 불리우는 매년 봄 1개월의 후과(後科)를 개설하여 졸업생들이 졸업 후에도 성경을 지속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 가을에 3개월을 공부하는 2년제 졸업 후 과정도 더해졌다.(해리 로즈, 2009: 423) 뿐만 아니라 조선인 목회자를 위한 특별 과정을 개설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성경 교육에 힘썼다.(장로회신학대학교, 2002: 122)

마포삼열이 신학 교육에서 성경을 강조한 것은 그가 맥코믹신학교 출신이라는 점을 통해 알 수 있다. 한국 초기 선교사들 가운데 상당수가 맥코믹신학교 출신이었다. 맥코믹신학교 출신 선교사들은 신학적으로 구학과의 전통에 있으면서도 부흥운동에 대해서는 열려 있는 개혁파 복음주의자들이었다. 이와 같은 경향은 한국 장로회의 색깔을 결정짓는 계기가 되었다. 후에 평양에서 대후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것도 맥코믹 신학교 출신자들의 이상과 무관하지 않다.(충신대학교, 2003: 232-233)

초등교육과정에서의 성경교육에서부터 평양신학교의 교육과정을 거쳐 양성된 조선인 성도들과 신학생들은 전국 각지로 흩어져서 지역 교회를 이끌어 갔다. 이 당시 농촌 계몽운동, 문맹퇴치운동, 주일학교 진흥운동, 절제운동 등을 주도하였다.(이성근, 2011: 13; 이덕주, 1989, 30) 당시 한국의 교육과 사회변혁과 문화를 이끌어 간 것이 교회라는 것을 고려할 때, 마포삼열과 선교사들이 설립한 학교들이 교회의 성장을 뒷받침하면서 교회를 이끌어갈 기독교 지도자를 양성하였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이는 학교를 통해 배출된 기독교 지도자들이 일제시대 당시 우리 민족에게 끼친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 여성교육

우리 사회에서 근대적 여성교육에 대한 관심은 개화기 국민계몽과 개발을 위해 교육이 강조되면서 나타났다.(이송희, 2005, 3) 각종 신문에서는 서양의 교육제도에 대해 소개하면서 여성에게도

교육의 기회가 부여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여성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독립신문, 1896, 4. 21일자, 9. 5일자) 여성 교육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는 가운데 개신교 선교사들은 가장 활발한 여성 교육 활동을 전개하였다. 1898년 당시 장로교 선교회는 평양에 여학생을 가르치는 교육 기관이 2개를 운영하였고, 황해도 장연에는 남녀가 함께 공부하는 학당을 설립하였다.(그리스도신문, 1898. 11. 3일자, “장로교회 년환회”)

마포삼열 역시 당시 교육의 기회에 소외된 부녀자들에게 새로운 소망과 긍지를 심어주기 위해 여성 교육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는 1893년 당시 정동여학당(정신여학교의 전신)의 이전 문제에 개입하여 선교부에 ‘여성과 어린이 선교 단체’들에게 여학교를 위한 기금을 통해 학교 이전을 할 것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 과정에서 마포삼열은 여학교 설립이 거대한 여성 사역의 중심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었다. 또한 교육해야 할 여성은 빈부와 계급의 차별을 두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Samuel A. Moffet, February 20, 1893)

이러한 그의 노력은 1903년 승의여학교의 설립으로 나타난다. 승의여학교의 모태는 ‘예수교소학교’였다. 예수교소학교는 1897년 가을 여성 교육을 위해 평양성 주변에 설립되었다. 선교사 이길함(Graham Lee) 집에서 배움의 열정이 있는 10여명의 소녀들이 모여 교육을 시작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승의여자중고등학교, 2003: 77)

승의여학교는 예수교소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에게 고등교육을 전하기 위해 설립된 중등학교였다. 승의여학교는 학교명 그대로 ‘의를 높인다, 숭상한다’는 교육적 목표를 바탕으로 설립되었다. 초기에는 여성들에 대한 선교, 여성 계몽, 교육자 육성, 전도를 위한 여성 교역자 양성 등에 역점을 두고 운영되었다. 따라서 승의여학교의 초기 졸업생들은 대부분 전국의 기독교 학교 교사, 목회자의 사모나 여교역자로 활동하였다.(승의여자중고등학교, 2003: 86)

승의여학교에서는 여성을 위한 가사 실습을 운영하였다. 이는 가사를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현모양처가 되도록 지도하는 것을 교육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로 설정했기 때문이다. 각종 요리와 바느질, 예절 등을 가사 실습을 통해 교육하였다. 이렇게 여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또한 조선 고유의 미풍양속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여성 교육을 전개하였다는 점 또한 주목하여야 한다. 당시 승의여학교는 남녀간의 교제 문제를 신중히 다루었고, 외부와의 접촉도 금하였다. 신입생들은 원칙적으로 기숙사 생활을 하였고 사감이 지도하였다. 이렇게 학생들의 생활 지도에 철저했던 이유는 딸을 진학시킨 학부모형을 안심시키고 사회 전반의 질서를 받지 않기 위함이었다.(승의여자중고등학교, 2003: 88-89)

마포삼열은 여성교육에 있어서 여성 선교사 및 국내의 여성 교육자의 역할도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는 여성 사역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성 선교사들이 자리를 잘 잡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했다.(Samuel A. Moffet, February 20, 1893) 자신의 아내인 엘리스 마펫은 여학교에서 위생학과 생리학을 가르쳤고, 그 밖에 다수의 여성선교사들이 여학교에서 강의하였다.(Alice Fish Moffet, October 25, 1904) 또한 예수교소학교 당시 조선 여성이었던 송정신이 교사로 활동했다는 점은 아직까지 여성교육이 자리잡기 어려웠던 조선의 환경에서 그야말로 파격적인 것이었다.(승의여자중고등학교, 2003: 78)

3. 전문교육

선교 초기 서울의 남학교나 평양의 숭덕학교에서 이루어진 수업은 대부분 초등과정의 교과였다. 마포삼열은 조선에서의 교육 사역이 초등교육 수준에 머무르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중등교육 이상의 교육이 이루어질 것을 희망했다. 서울의 남학교에 관한 보고서에서 마포삼열은 이 학교에서 초등교육을 마친 학생들이 다른 또래보다 더 나은 능력을 갖출 것이며, 이들 중 남는 자가 고등 교육을 이수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이때부터 그는 초등교육 이상의 중등, 대학 과정의 수업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Samuel A. Moffe, October 19, 1893)

숭실학교의 설립은 마포삼열의 그러한 희망이 가장 잘 드러난 것이다. 1899년 조선 정부의 학무아문에서 중학교 관제를 발표하자, 숭실학교는 1900년부터 5년제의 중학교 교과과정을 적용하였다. 5년제 과정은 예비반과 일등반부터 오등반으로 운영하였으며, 국어, 한문, 수학 등의 과목으로 구성된 입학시험을 통해 중등 학업을 성취할 수 있는 자를 엄격히 선발하였다.(숭실대학교, 2007: 24).

교명 '숭실(崇實)'에서의 '숭'은 '숭상(崇尚)'한다는 뜻이며 '실'은 '진실'의 실이요, '성실'의 실이다. 진실이란 진리의 탐구를 말하며 성실이란 도덕적인 인격의 수련을 일컫는 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숭실이란 이론적인 진리의 탐구와 고결한 인격의 수련을 동시에 수행하겠다는 의지의 발로였다.

1905년 숭실중학교 재학생은 160여명에 달하였고, 학생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고등교육 기관의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1905년 국내 최초로 대학과정의 교육을 시작하였고, 1906년 '대학부'를 개설하기에 이르렀다. 마포삼열은 숭실학교 대학부 임시 이사회의 의원으로서 숭실학교 대학부 운영에 참여하였는데, 1905년에 장로교 선교부와 감리교 선교부는 숭실학교 대학부 임시 이사회를 배위량, 마포삼열(馬布三悅 S. A. Moffet), 방위량(邦緯良 W. N. Blair) 등의 의원으로 구성하였다. 그리하여 감리교 선교부는 1906년 8월에 숭실학교 대학부의 운영에 정식으로 참여하게 된 것이며, 이에 따라 학교 이름도 합성숭실대학(Union Christian College)이라 부르게 된 것이다.(숭실대학교, 1997: 131쪽; Richard H. Baird, William M. Baird of Korea: A Profile, 136)

숭실대학 개교기념식은 숭실대·중학교가 함께 학교가 아닌 교회에서 거행되었다. 1922년 개교 기념 예배는 장대현(章臺峴)교회에서 거행되었는데 교장과 설립자의 기념사와 중학교 학감, 대학부 학감의 학사 보고에 이어 목사의 연설과 내빈의 축사가 있는 후 교가 제창으로 폐회하였다. 1923년 개교기념 행사는 서문(西門)교회에서 개최되었는데, 관악 연주로 시작하여 찬송, 기도, 성경 봉독에 이어 교장 마포삼열의 취지 설명, 4인합창, 바이올린 독주 그리고 도지사 대리 및 전국 교회 대표의 축사가 있고 교가 제창으로 폐회하였다.(東亞日報, 1923, 10, 14일자; 숭실대학교, 1997: 146)

이후 1918년부터 10년간 숭실학교의 교장을 역임하면서 대학부를 비롯한 학교 운영 전반을 관여하였다. 대학부의 개설은 당시에 큰 화제가 되었다. 대한매일신보에서는 「하평양대학교설립(賀平壤大學校設立)」이라는 창립 축하 논설을 실었으며, 평양 지역민들이 수천원의 기부금을 조성하기도 하였다.²⁾ 또한 제1회 졸업생을 배출할 당시에도 언론은 이를 '한국 교육계의 일대 호사'라고 평가하는 등 숭실학교의 고등교육은 큰 관심을 끌었다.(공립신보, 1908, 11, 18일자, "論平壤大學校

卒業生”)

또한 1924년 전문학교 규칙에 의거하여 전문학교 인가원을 제출하여 1925년 4월 1일부로 전문학교 인가를 받게 되었다.

평양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되었고, 또한 평양 최고학부인 숭실대학에서는 작년부터 승격을 운동하여 오던 바 지난 4월 1일부터 전문학교령에 의하여 동교 문학부를 전문학교로 인가한다는 정식 지령이 근일에 나왔는데 동교에는 이학부도 역시 승격할 준비 중이라더라.³⁾

숭실학교는 문학부 및 이학부까지 신청하였으나, 문학부만이 전문학교로 인가되면서 연희전문학교,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 보성전문학교 등에 이어 사립전문학교로 개편되었다.(숭실대학교, 1997: 277-278)

평양신학교의 신학 교육 역시 전문교육의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당시 조선의 전문교육은 정부의 전문학교 정책과 맞물려 있었다. 1885년 갑오개혁을 기점으로 조선 정부는 외국 어학교, 의학교, 상공학교 등의 전문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의학교의 경우 1902년 최초의 근대식 면허 의사 19명을 탄생시켰고, 이후 17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조선 및 대한제국 정부의 교육정책은 재정의 부족과 외부의 압력 등에 의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따라서 전문교육은 초등교육과 마찬가지로 사립학교의 힘을 빌릴 수 밖에 없는 것이었다.

평양신학교는 전문적인 신학교육을 통해 다양한 기독교 지도자를 배출하고자 설립된 최초의 신학전문학교라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1920년 3년제의 과정을 통해 전문학교 제도를 도입할 당시, 등록 학생수는 138명으로 실상 세계에서 신학교로서는 매우 큰 규모였다. 초기에는 전적으로 성경공부에 집중하였으나, 점차 전문학교의 성격에 맞게 교회사, 조직신학, 신천신학 등 이론적 신학 분야에 관련된 수업도 진행하면서 신학전문학교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갔다.

2) 『대한매일신보』, 1906년 7월 13일자, 「賀平壤大學校設立」. 역대 교장은 배위량(裴緯良, W.M. Baird, 1897.10.10 - 1915.3.31.), 나도래(羅道來, R .O. Reiner, 1915. 4.1 - 1918.3.31.), 마포삼열(馬布三悅 S. A. Moffet, 1918. 4.1 - 1928. 8.14), 숭실대학교, 위의 책, 1997, 152쪽

3) 『동아일보』, 1925년 5월 28일. 숭실전문학교 정관에 보면 기독교 대학을 교육을 통해 전문적인 기독교 지도자 양성을 그 목적으로 두고 있다:

<숭실전문학교 정관>.

제1조 명칭 및 위치.

1. 이 학교는 숭실전문학교라고 칭한다. 2. 이 학교의 위치는 조산 평양부 신양리 39-1로 한다. 제2조 목적 1. 이 학교는 모든 학생들을 복음화 시키는데 역점을 둠으로써 한국의 교회를 이끌어 나갈수 있는 자질을 갖춘 기독교 지도자를 배출하기 위하여 철저한 기독교대학의 교육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이 학교는 이러한 목적을 확고하게 성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과과정의 한 부분으로 성경을 교수한다. 3. 이러한 목적의 장기적인 수행을 위하여 정규 전임교수 전원은 훌륭한 자질을 갖춘 진실한 기독교인이어야 한다. 4. 이 학교는 원칙적으로 기독교인이거나 또는 기독교인의 자녀들을 위한 기관이지만 아직 기독교인이 되지 아니한 학생들을 절대적으로 제외시키는 것은 아니다. 다만 비기독교인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이 학교의 목적은 아니다. 숭실대학교, 위의 책, 1997, 320쪽.

4. 마포삼열의 학교 운영의 특징

마포삼열은 자신이 설립하거나, 설립에 참여한 학교 운영에 대해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 성경을 비롯한 대부분의 수업에서 토착어를 사용하였다는 점이다. 마포삼열은 뒤이어 입국하는 선교사 출신의 교사들에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한국어를 익히게 하였다. 또 선교회 차원에서 모든 수업이 토착어로 이루어지도록 규칙을 정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할 정도로 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다.(Samuel A. Moffet, January 20, 1893)

둘째, 마포삼열은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복지에 큰 관심을 기울였다. 그는 정동의 예수교학당을 운영하던 당시 학생들이 입학하면 재학 중에 의,식,주를 모두 제공하였다.(Samuel A. Moffet, February 23, 189). 송실학교와 송의여학교를 설립·운영할 때에도 기숙사를 운영하여 최대한 많은 학생들을 수용코자 했다. 학생들에게 이러한 교육 환경을 제공한 가장 큰 이유는 재학생의 유지 때문이었다. 1891년 당시 감리교에서 운영하던 배재학당의 경우 재학생이 80명에서 10명으로 줄어들었는데, 이를 통해 마포삼열은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학교는 수요가 없다고 판단하였다.(Samuel A. Moffet, September 17, 1891) 기숙사를 비롯한 의식주 제공은 당시 가난한 학생들에게는 학교에 다니는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이다.

의식주를 제공할 경우 학생들은 어느정도 모집할 수 있으나, 문제는 학교를 운영할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이었다. 또한 비용의 부담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학생들의 학습의지가 높지 않다는 점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었다. 따라서 마포삼열은 학비의 일부를 자비로 내는 학생들을 점차 모집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Samuel A. Moffet, September 17, 1891) 그러나 학비를 얼마나 낼 것인지에 대해서는 학생 각자의 형편에 따라 가능한 만큼만 스스로 부담하게끔 했다.(Samuel A. Moffet, October 19, 1893)

셋째, 마포삼열은 의식주와 관련된 기본적인 생활의 보조 뿐 아니라 학생들의 자치활동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송실학교에서 운영된 학생자조사업부(學生自助事業部)는 학생들에게 기술 교육을 배울 수 있도록 설치한 조직이었다.(송실대학교, 2007, 30) 또한 음악, 체육 및 문예 활동을 위한 자치단체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송실학교의 축구부는 1920년대 이후 전조선축구대회에서 여러 차례 우승을 차지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다.

1912년 송의여학교에서 조직된 공주회의 경우 신앙 훈련을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학생 단체였다.(송의여자중고등학교, 2003: 106) 송실학교 역시 전도 활동을 위한 학생기독교청년회를 만드는 등 기독교 관련 자치활동도 꾸준히 전개되었다. 마포삼열은 학생들이 수업 외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는 점이 많다고 생각했다. 그의 지원을 통해 운영된 다양한 학생 자치단체는 일제에 의한 국권 피탈 이후 학생들의 독립운동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

Ⅲ. 마포삼열의 교육 활동의 영향

마포삼열은 살펴본 바와 같이 서울과 평양 등 다양한 지역에서 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하였다. 그의 교육 선교를 통해 수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배출되었으며, 그들은 일제의 국권 피탈 이후

다양한 독립운동에 앞장섰다. 뿐만 아니라 그가 설립·운영한 학교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일제에 저항하였다.

숭의여학교의 송죽회(松竹會)는 가장 잘 알려진 학생 민족운동단체였다. 숭의여학교 교사와 졸업생 및 재학생으로 구성된 비밀 결사 조직인 송죽회는 1913년 가을, 숭의여학교 기숙사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교사였던 황애덕, 김경희, 이효덕은 동료 교사들과 졸업생 중에서 결사대원을 모집하였다. 송죽회의 행동 지침은 크게 여섯 가지로 나타나는데 다음과 같다.

- 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다,
- 나. 나라와 겨레를 위해 목숨이라도 바친다.
- 다. 비밀을 철저히 지킨다.
- 라. 독립 운동 자금을 마련한다.
- 마. 우정과 선후배의 신의를 끝까지 지킨다.
- 바. 명령에 복종하고 의무를 수행한다.

이러한 지침을 바탕으로 송죽회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독립운동자금을 모아 국내에 파견되어 있는 상해 임시정부 요원에게 전달하였고, 일본으로 유학한 대원들은 2·8 독립선언에 참여하였다. 또한 3·1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교회에서는 여성 계몽 운동을 전개하였다.(숭의여자중고등학교, 1963: 131; 2003: 118-122)

송실학교 역시 적극적인 민족운동을 전개하였다. 일제는 황해도와 평안도 지역의 민족운동에 대해 대대적인 탄압을 진행하였는데, 그 중 하나였던 105인 사건에 송실학교 학생과 교사 15명이 연루되어 실형을 받기도 했다. 3·1운동 당시에는 송실학교 학생 김건 등이 대형 태극기를 제작하여 국기계양대에 계양하고 만세운동에 참가한 것을 시작으로 전교생 대부분이 3·1운동에 참가하여 다수가 옥고를 치루기도 했다.(송실대학교, 2007: 59-61) 당시 선교사이자 교수였던 마우리(E.M.Mowry)의 경우 독립선언문과 태극기를 만들던 학생들이 일제의 추격을 받아 그들을 숨겨주고 독립선언서를 번역하여 미국 선교본부에 보내어 구속되기도 하였다.

마포삼열의 영향을 받은 이러한 학교들은 1910년대 일제의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탄압정책이 시행되던 시기에 '105인 사건'과 항일 비밀 결사 조직인 '조선국민회'을 통해 보여지듯이 항일 독립 운동의 중심이었다. 송실학교와 평양신학교를 비롯한 1910년대 사립학교는 일제의 식민지 정책에 저항한 민족 학교로서 애국 계몽 운동의 중심적인 학교였다. 1910년대부터 그리고 이후 3·1운동의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16인은 물론이고 독립 운동을 전개한 이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다. 특히 기독교 학교인 송실학교는 '조선국민회' 조직의 중심 세력이었으며, 평양신학교도 독립 운동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그것은 민족대표 33인 중에 5명(길선주, 양전백, 유여대, 이승훈, 김병조)이 평양신학교 출신이었다.(박용규, 2004: 121-122; 유준기, 2000: 97)

한편 평양신학교, 송실, 송의학교와 더불어 마포삼열이 가르쳤거나 설립한 학교는 거의 모두 일제의 신사참배 요구에 저항하여 자진 폐교한다. 마포삼열은 신사참배가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이를 거부한 것이다. 당시 평양 선교사들 중 지도자급 위치에 있던 탓에 그의 신사참배 운동은 교회를 비롯해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끼쳤다. 1차적으로는 기

독교의 신앙을 지키는 일이었지만, 그 영향은 일제의 식민통치를 거부하고 우리 민족의 민족성을 지키는 일로 이어진 것이다.

맺음말

한국의 근대화에 기여한 여러 가지 역사적인 상황들이 있지만, 외국 선교사들의 한국 근대 교육과 의료 선교에 기여한 점은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었다. 복음 전파의 선교적인 전략 면에서도 교육 활동의 영향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선교사들의 교육 활동이 단순히 근대 교육을 한국에 도입하였다는 의미보다는, 이 교육이 항일 민족 교육의 운동에 기여하였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결국 선교사들의 교육 활동은 한국 사회에 교회에 대한 우호적인 입장을 견지하게 하고, 나아가 애국 계몽운동과 일제의 식민 정책에 반대하는 민족주의 운동에 주도적인 그룹으로 역할을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가능하게 한 대표적인 선교사가 마포삼열이었다. 따라서 그의 교육자로서의 활동에 대해 고찰하는 것은 그의 선교 활동에 대한 이해 뿐 아니라 근대교육사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본고는 그러한 관점에서 마포삼열의 교육 활동의 과정과 동시에 그가 추구하고자 했던 교육의 방향을 분석하였다. 그가 평양에서 진행했던 성경 및 여성교육, 고등·전문 교육 등의 활동은 교육자로서의 면모를 잘 드러내고 있다.

1900년대 초 한국의 전체 교회 및 교육 사업의 70% 이상이 평양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점과, 당시 평안도에 설립된 수많은 초등 교육기관의 2/3가 바로 마포삼열에 의해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마포삼열이 교육사업에 얼마나 활발히 참여했는가를 충분히 입증한다. 마포삼열은 평양 선교 10년째인 1903년 8월, 자신의 교육사역에 대한 입장을 나타냈다.

우리가 교육을 무시했다고는 믿지 않으며, 상황에 맞게 적용시켰다. 10년 만에 교인이 100명에서 20,000명으로, 세례교인도 수십 명에서 5,000명으로 지속 성장한 것을 고려할 때, 그 10년 동안 산동이나 다른 지역에서 40년 동안 이와 비슷한 수적 성장을 하면서 교육한 자들과 같은 노선으로 이 많은 교인들을 목회할 자를 교육시킬 수는 없었다. 우리는 비록 제도적 교육을 무시하지는 않았지만 그 교육의 기초를 놓기 전에 많은 교구민(constituency)들을 복음화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제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는 불가능했을 기독교인 교구민을 가지고 있고, 1,000명에 가까운 학생이 다니는 초등학교들과 내년에 첫 졸업생을 배출하는 고등학교가 있다. 이것은 많은 자들을 모아들인 전도 사업에서 성장해 나왔다.(이재겸, 2011: 79)

마포삼열은 선교사로서 한국의 근대교육과 민족 교육에 기여한 인물로 교육자로도 평가되어야 한다. 그는 한국 교회의 아버지로서, 한국 교회의 복음화를 위해 일생을 헌신한 선교사였으며, 동시에 평양신학교와 숭실대학교 그리고 숭의학교의 설립자와 학장으로 재임한 교육자였으며, 동시에 일제강점기의 식민지 통치기에 민족 교육을 위해 투신한 한국 근대역사의 산 증인이었다.

-1차 사료

『공립신보』

『그리스도신문』

『독립신문』

『동아일보』

『대한매일신보』

Samuel A. Moffet, 『Samuel A. Moffet's Letter』

-논저

곽안련 (1994), 『한국교회와 네비우스선교정책』,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김인수 역, 『마포삼열 목사의 선교 편지(1890~1904)』, 서울: 장신대 출판부.

숭실대학교 (1997), 『숭실대학교 100년사』, 서울: 숭실대학교출판부

_____ (2007), 『숭실 110년 화보』, 서울 : 숭실대학교, 2007.

숭의여자중고등학교 (1963), 『숭의 60년사』, 서울: 숭의여자중고등학교출판부

_____ (2003), 『숭의 백년사』, 서울: 숭의학원

옥성득 역 (2011), 『마포삼열 서한집』 1권, 서울: 두란노

장로회신학대학교 (2002), 『장로회신학대학교 100년사』, 서울:장로회신학대학교

총신대학교 (2003), 『총신대학교백년사』, 서울: 총신대학교출판부

한국기독교사연구회 (1989), 『한국개신교의 역사1』, 개신교문사

해리 로즈 (2009), 『미국 북장로교 한국 선교회사』,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논문

권태경 (2014), “마포삼열(馬布三悅, Samuel Austin Moffett, 1864-1939): -에딘버러 선교보고의 내용을 중심으로.” 『기학연 학술대회 발표문』.

박연호, 손세희 (2011), “선교사들의 교육 사업 계획과 실천, 1884~1906.” 『교육사학연구』, 21.

유준기(2011), “1910년대 기독교의 민족 독립운동: 평양신학교를중심으로,” 『총신논총』 19, 83-34.

이덕주 (1989), “3.1 운동의 이념과 기독교 신앙문제.” 『한국기독교사 연구』 25.

이성근 (2011), “평양신학교 신학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이송희 (2005), “한말, 일제하의 여성교육론과 여성교육정책.” 『여성연구논집』 16.

이재겸 (2011), “사무엘 마펫(Samuel Austin Moffett)의 선교방법 연구.” 석사학위논문, 장신대학교.

임인재 (2015), “1895~1910년 서북지역 공·사립학교 설립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조선훈 (2013), “노블 부인의 선교생활 연구.” 박사학위논문, 감신대학교

최영근 (2003), “언더우드와 마펫 비교 연구”, 『교회사학』 2.

_____ (2015),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 인돈(William A. Linton)의 교육선교” 『한국교회사학학지』, 40.

John L Nevius (1954), *The Planting and Development of Missionary Churches* (The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mpany).

Sallie. F. Swallen (1983), *Dear Sister Jennie* (Seoul, Korea:1893)

S A Moffett, “*THE PLACE OF THE NATIVE CHURCH IN THE WORK OF EVANGELIZATION*“, A Paper read at the World Missionary Conference, *Union Seminary Magazine*, 12 (October–November)

마포 삼열의 교육 활동의 전개

권태경 (충신대학교 교수)

논문초록

20세기 초 한국의 근대 교육은 선교사들이 교육 발전에 중대한 역할을 하였다. 이 글은 한국의 대표적인 선교사 마포삼열의 교육 활동에 대한 연구이다. 지금까지 마포삼열에 대한 연구는 그의 선교 활동에 대한 것이거나, 다른 선교사들과의 비교 분석 정도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마포삼열의 교육 활동에 집중하고자 한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크게 세 가지의 문제 제기를 통해 논지를 전개해 나가자 한다. 첫째, 마포삼열의 서신을 통해 그가 어떠한 교육 활동을 계획하였으며, 진행하였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둘째, 그가 설립했거나 운영에 참여한 학교들을 분석함으로써 그의 교육 사역의 중점적인 목적과 방향을 살펴본다. 셋째 그가 제시한 교육 활동이 이후 한국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밝히하고자 한다.

마포삼열은 선교사로서 한국의 근대교육과 민족 교육에 기여한 인물로 교육자로도 평가되어야 한다. 그는 실제로 평양신학교와 숭실대학교 그리고 숭의학교의 설립자와 학장으로 재임한 교육자였다. 그가 평양에서 진행했던 평양신학교를 중심으로 보여준 성경·신학교육 그리고 숭의학교를 통해 드러낸 여성교육, 마지막으로 숭실학교를 통해 한국의 고등·전문 교육 등의 발전에 영향을 준 것은 교육자로서의 면모를 잘 드러내고 있다.

마포삼열은 한국의 근대 교육 발전에 기여한 것과 더불어 이 시기가 일제강점기의 식민지 통치기였으므로, 결국 그의 교육 활동은 민족 교육 발전에 투신한 한국 근대역사의 산 증인이었다. 이처럼 한국 근대사에서 마포삼열과 같은 선교사들의 교육 활동이 단순히 근대 교육을 한국에 도입하였다는 의미를 넘어서, 그의 교육 활동이 항일 민족 교육의 운동에 기여하였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주제어: 마포삼열, 평양신학교, 숭의학교, 숭실학교, 민족교육

Abstract

The Educational Activities of Samuel Austin Moffet

Taekyoung Kwon (Chongshin University)

In the early 20th century, missionaries in Korea played an important role in developing Korean modern education. This paper deals with educational work done by Samuel Austin Moffett, one of the most famous missionary in Korean modern history. Most studies on him in the past were about his missionary work or comparison with other missionaries. This paper tries to focus on Moffett's educational work.

This paper focuses on three aspects of his work. First, his plans for education and how he developed them throughout his letters. Second, his goals and orientations in educational ministry by analyzing on schools he founded or administrated. Third, the effects his educational work he presented on Korean society later on.

He has to be evaluated not only as a missionary, but also as an educator who contributed to Korean modern and national education. In fact, he is a founder of Pyongyang seminary and Soongeui school and, served as a dean of Soongsil school(university). His role as an educator is well shown in various educational works in these schools. He engaged in theology education in Pyongyang seminary, women education in Soongeui school, and developed Korean higher and professional education in Soongsil school(university).

Samuel Austin Moffett contributed to developing Korean modern education and his educational work also plays a role as an witness of a period of Japanese colonial rule where we were enthusiastic about developing national education.

Key words:

Samuel Austin Moffet, missionaries, Pyongyang seminary, Soongeui school, Soongsil school